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어느 순간, 그동안 삶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단어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함을 느끼게 된다. 주름, 흰머리, 뱃살, 노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들이 주로 외모나 신체와 관련된 것이라면 실패, 좌절, 절망, 불안, 우울 등은 심리적이고 정서적 표현들이라 할 수 있다. ‘체념’이라는 단어 역시 그 중 하나다. 실패나 좌절이 더 깊고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면, 체념은 기대를 접는 데 있어서 뭔가 순간적 감정이나 판단 등 일시적 느낌으로 남는 듯하다. 칼 풀라나는 그의 저서 ‘거대한 전환’에서 “체념은 항상 인간에게 힘과 새로운 희망의 샘이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것을 기초로 삼아 자신의 이승에서의 삶의 의미를 쌓

체념과 희망

아 올리는 법을 배웠다”라고 썼다. 그는 죽음이라는 좀 더 궁극적인 절망 앞에서 ‘체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은 일상의 다양한 체념에 익숙해지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의 시간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체념 사이에서 흘러간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꿈은 사라지고 이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깨닫으면서 체념의 숫자를 늘려 가는 중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수많은 체념으로 구성된다. 예전에 동그란 공으로 하는 스포츠라면 거의 좋아했다. 잘한다는 말도 꽤 들었다. 하지만 이제 내 몸은 과거의 몸이 아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때 부모들이 이어달리기에서 많이 넘어지는 이유도 머리가 과거의 몸을 기억하고 달려가기 때문이다. 이제 조심해야 할 때가 되었다. 무엇보다 체념할 때가 된 것이다.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내 몸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체념과 포기. 체념과 포기는 다르다. 체념이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시간에 따른 판단 행위를

뜻한다면, 포기는 미래를 포함한 시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다. 그런 점에서 체념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체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체념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체념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거나 발견하기도 한다. 체념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아 새로운 것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체념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나 과거와 단절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한 단절이야말로 새로운 상상,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절망과 죽음이라는 극단의 비극에서 비로소 희망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살면서 더 필요한 일은 수많은 체념 속에서 희망을 엿보는 일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윈터미어 부인의 부채’ (Lady Windermere’s Fan)라는 작품에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빠져 있다네. 하지만 우리 중 몇몇은 별을 바라보고 있지.” (We are all in the gutter, but some of us are looking at the stars.) 사실, 언제 나 그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희망적이었던 적은 없었다. 인간은 항상

‘시궁창’ 같은 현실에 절망했고 좌절했다. 그 속에서 체념은 지극히 당연한 대다수의 선택이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체념 가운데 있으면서도 별을 바라보는 일이다. 시궁창에서 허우적대면서도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저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궁창에 있다는 사실을 잘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 시궁창 안에서도 탐욕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기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있다고 말을 해 주어야 한다. 칼 풀라나가 말한 ‘죽음이라는 현실을 기초로 삶의 의미를 쌓아 올리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인 노력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운동 주석과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만 강조할 때, 누군가는 저기 사람이 살고 있다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별걸을 움직여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체념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종교칼럼

징검다리



황성호  
신부·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광주전변을 걷다 보면 좌우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다. 시정을 향해 걸어가다 때 오른쪽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해 두었고, 왼쪽은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넓게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가끔 이것저것 생각거리들을 정리하기 위해 천변 오른쪽을 걸을 때가 있다.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달리 내 옆으로 세찬 바람을 일으키고 지나가는 자전거들이 있다. 자전거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쌩’ 하니 내 옆을 지나 가면 산책을 방해 받는 것 같아 불쾌하다. 잘못 진입한 것이겠지 하지만, 속으로 ‘저 사람 제정신이야! 여긴 자전거 금지 구역인데!’라고 중얼거리기도 한다. 그것도 잠시,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속 걷는데 광주전에는 중간 중

간에 징검다리들이 놓여 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쪽과 저쪽을 오갈 수 있으니 좋고, 징검다리 중간에 서서 광주전의 흐름과 떨어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것도 참 좋다. 우리는 삶의 길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오랫동안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습관들 또한 그것이 내 건강과 삶을 망친다고 해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잘못된 관점과 이념으로 고착화되어 버린 생각도 고치기 어렵다.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리석음을 멈추기가 어렵다. 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어렵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도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오만과 탐욕으로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포도밭 조각인의 비유가 떠오른다. 마태오 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다. 한 주인이 포도밭을 일구어 소타리를 둘러치고 탐을 세웠다. 그리고 조각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철 이 다가오자 주인은 자기 몫을 위해 종들을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러나 조각인들

은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여 버린다.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이들도 조각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급기야 주인은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조각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조각인들은 ‘저자는 상속자다!’라며 포도밭을 독차지하기 위해, 오만으로 시작해 탐욕의 정점인 폭력으로 그 아들마저 죽이게 된다. 그 주인은 그 조각인들을 가차 없이 없애 버리고, 자신에게 소출을 내는 다른 조각인들에게 그 밭을 내어주고 만다. 이 예수의 비유는 당시 하느님의 백성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하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토대인 십계명을 삶으로 살아 내도록 이끌어야 하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당시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사명은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고,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스스로의 오만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잃어버렸다. 조각인들로 비유되는 이들의 사명은 바로 하느님과 세상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러나 율법과 지위라는 기득권의 힘으로 사람들이 하느님께 가는 것을 막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사랑과 희생의 말씀을 더럽혀 하느님까지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팔아버린 것이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사명인 징검다리의 역할을 상실해버린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종교와 신앙인의 역할은 바로 징검다리의 역할이다. 오른쪽과 왼쪽 어느 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다. 부와 가난 사이에서, 풍요와 결핍 사이에서, 강함과 약함 사이에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종교와 신앙인들의 사명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종교와 신앙인들은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벼랑 끝에 서서 갈등하지 않도록 종교와 신앙인을 넘어서 우리가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유다.

社說

‘공항 이전’ 감정싸움으로 치달아선 안 된다

광주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치열한 신경전 속에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면서 자칫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원샷’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양 시도의 시각차에서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에 있는 민간공항 무안 이전과 함께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는 민간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이전·통합은 2007년 국토부 방침으로 결정됐다. 이후 2018년 8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7기 출범 이후 상생협약을 통해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실무마가 풀리는 듯했다. 동시에 군공항 이전에도 협력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생 협약의 해석을 놓고 원

샷이나 투트랙이나 맞서면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민간공항 이전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광주시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민권익위는 여론조사에 앞서 TV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투트랙 이전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시민권익위의 권고를 명분으로 민간공항 이전을 철회하기 위한 출구 전략을 준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공항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 협력해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지역 현안이다. 광주시는 시민권익위의 여론조사가 협약 파기 수순이라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전남도도 열린 마음으로 군공항의 전남 이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결국 시도주사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순다.

‘학재 무방비’ 스프링클러 없는 학교 많다니

광주·전남 일선 학교에 화재 발생 때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현재 광주광역시 중·초·고·특수학교 316개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81개교(25.6%)였다. 전남 지역은 학교 867곳 가운데 214곳(24.7%)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전국 평균(33%)에 비해서도 훨씬 낮았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과학실(실험실)과 조리실을 별도의 건물에 두고 있는 학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모두 155개교였다. 조리실을 별

도로 두고 있는 건물 역시 73개 동 중 72개 동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처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대부분 학교가 6층 이하 건물인 상황에서, 6층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맹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학교가 운영하는 조리실·과학실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 등 용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기다리기에 앞서 사·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화재 위험에 취약한 학교의 안전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실과 조리실 등 화재 취약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교내 화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별도의 안전관리법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비 신랑 신부들만거나 막막한 이들이 없지 않다. 결혼식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식을 생략한 채 동거에 들어간 커플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저소득층이다. 예년 같으면 지자체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결혼식을 열었지만 올해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결혼 특히 노총각·노처녀의 혼인 문제는 조선시대에도 왕이 직접 챙기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당시에는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것이 국가의 주요 의무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경국대전’도 영조 12년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책무와 관련해 “국정 전반을 통괄하고 음양을 다스리며 국가를 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흥수나 가뭄 같은 재난은 물론 노총각·노처녀가 결혼하지 못하는 것 역시 음양의 부조화이자 나아가 임금의 부덕 탓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국가가 혼인 장려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노총각·노처녀의 기준은 몇 세였을까? 아동용 유교 교재인 ‘소학’의 해설서인 ‘소학집주’에 따르면 결혼은 여성 20세, 남성 30세에 하는 게 적당한 것으로

선상 결혼식

시행됐으며, 그 가난의 정도에 따라 쌀과 콩을 혼수로 지급하는 등의 혼인 정책을 폈다. 정조도 서울의 노총각·노처녀 총 281명에게 결혼 자금으로 돈과 포목을 지원해 3개월 만에 남녀 한 명씩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시켰다. 안도균이 오는 24일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취소했거나 연기한 예비부부와 형편상 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등을 대상으로 안도항에서 무료 선상 결혼식을 갖는다고 한다. 방역에 애쓰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주민을 살피는 세심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재희회 사회부장 chae@

기 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메이커 문화 확산이 답이다



이동희  
동신대 교수·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장

인간은 ‘호모 파베르’로서 도구와 기계 등을 만들고 발전시키며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정체되었던 호모 파베르의 갈망은 정보 통신 기술(ICT)의 발전을 통해 증폭되었고, 스스로 필요한 물건을 제작하는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이 대두되었다. 세계 최대 메이커스페이스 프랜차이즈의 전 CEO 마크 해치는 ‘Make(만들라), Share(나누라), Give(주라), Learn(배우라), Tool up(도구를 갖추라), Play(갖고 놀아라), Participate(참여하라), Support(지원하라), Change(변화하라)’라며 메이커 운동 선언을 주장했다. 개인의 취미로만 여겨지던 디어아이(DIY)의 패러다임은 그의 선언과 함께 메이커 운동이라는 문

화로 발전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메이커 활동을 취미 수준의 DIY 단계를 넘어 창업으로 연계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다방면으로 지원 중이다. 세계적으로 메이커 문화가 확산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업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물의 스마트화(사물 인터넷)가 진행되면, 산업의 생산 방식이 디지털화하고, 생산 인프라(통신망, 물류망, 에너지망)는 기능을 가진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가 되어 한계 생산 비용이제로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빠르게 사업화되는 반면에 큰 고정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앞으로 71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200만 개의 직업이 새로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실제로도 많은 분야에서 기계(인공지능, IT)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메이커 문화 확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과학·기술·공학 분야의 융합형 인재를 키우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추진해 2020년 현재 전문 랩 12개, 일반 랩 177개 등 189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되고 있다. 메이커 스페이스 일반 랩은 학생·일반인들이 목공 장비, 3D 프린터 등을 활용해 생활 속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 랩은 일반 랩의 기능에다 레이저 커팅기, 컴퓨터 수치제어(CNC) 선반 등 전문 제조 장비를 이용해 시제품 제작과 양산까지 지원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동신대 메이커 스페이스(전문 랩)가 에너지 신산업 전문 메이커 양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FARM(Fundamental of IoE, Adventure Design, Research and Development, Management and Marketing)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관리, 사물 인터넷, 인공 지능,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에너지 신산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찾아가는 메이커스 버스’를 운영해 호남 지역 구석구석을 방문하며 초·중·고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내 에너지 클러스터에 위치한 동신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특성화해 관련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일반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상상력 기지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21세기 초 노동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생활 방식도 작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직업들이 명멸하고 있다. 인류는 이제 구태의연한 기술이 아닌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발돋움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인프라를 심층 활용해 우리 스스로 메이커가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척자(Pioneer)가 되어야 할 때다.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지국(국무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